

며 그年代는 우리 熊津時代에 該當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築造法에 있어서는 寫眞에서 보다시피 橫位로 三列을 쌓고 그위에 縱位로 一列 다시 橫三列 縱一列式으로 反復하였으며 壁中間部에가서 短壁에 一개, 左右長壁에 數末詳의 長方形 龕을 만들었고 그 위에는 縱位 博을 一枚씩 省畧해서 格窓같은 效果를 나타낸 二段의 橫列이 있다. 이러한 格窓壁은 우리가 公州 博墳에서 본 바로 그것이다.

한편 天井部를 위해서는 所謂 斧形博 卽 上寬下促의 博을 만들어서 아래 위를 建設하였고 바닥은 玄室에서는 橫二枚 縱二枚의 鋪博法으로 바둑盤처럼 짜고, 羨道는 人字로 사자리 形으로 깔고 있다.

至今 盜掘로 因해 內部狀態는 攪亂되었으나 羨道와 玄室東壁附近에서 陶鼎, 陶杯, 陶瓶, 陶硯, 陶碗, 陶盤, 그리고 石猪 등이 나왔고 따로 木槩의 存在를 表示하는 鐵釘들이 發見되었다.

x x x

以上이 永元元年(四九九年)銘博으로 築造된 南齊博墓의 대강인데 이 미 指摘한 바와 같은 構造上的 酷似點以外에 이 附近 다른 墓에서는 羨道에 六條의 排水溝가 있는 것이 있고 또 墓의 方向도 이 古墳은 北向이지만 그것은 特例이고 大部分은 南向으로 되어 있어 모두 公州 博墳과 通하고 있는 것이다. 百濟가 南朝各國과 密接한 文化交流를 하였고 特히 宋山里的 花文博이 南京附近出土의 梁代 花文博과 꼭 같다는 것은 이미 關野貞氏가 指摘한 바와 같으며 ② 最近에 筆者는 扶餘出土의 畫文方博이 亦是 南京附近出土의 六朝時代 墓博과 꼭 같다는 點을 指摘한 바 있다. ③ 至今 百濟의 文物에서 中國南朝의 要素를 들어내려면 이밖에도 얼마든지 있으며 우리는 새삼스러이 古代에 있어서의 開放의이고 必然의인 文化交流의 實相을 느끼게 되는 바이다. 그러나 이것이 百濟의 體面이나 百濟魂에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그러한 文化受容態度 위에서 百濟魂의 進取的인 面이 發展해 나간 것일 것이니 이 百濟魂의 傳統을 받들어 洪思俊先生께서 너무 高句麗나 新羅같은 他國人을 輕視하지 않고 餘生을 더욱 올바른 百濟魂宣揚에 힘쓰시기를 懇切히 바라나이다.

註

① 「長沙兩晉南朝隋墓發掘報告」(考古學報一九五九年三期 pp. 75-105)

② 關野貞 「博より見たる百濟と支那南北朝——特に梁との文化關係」(朝鮮の建築と藝術)(一九四一年東京所收 pp. 475-490)

③ 拙稿 「韓國美術史研究의二、三問題」(亞細亞研究 VII-3 一九六四, 九, pp. 53-67)

### 傳 서울近郊出土 金銅如來立像

黃 壽 永

서울市와 廣州郡에 속하는 서울郊外 漢江流域은 先史遺蹟뿐 아니라 百濟古都城의 遺址로서 注目되어 왔다. 그런데 이와같은 視點에서뿐 아니라 이地域은 百濟佛敎初傳의 땅으로 우리나라 佛敎美術 發生期의 遺物과 遺蹟이 期待되어 왔다. 그리하여 一九五九年 漢江 靑島附近에서 收拾된 高不過 五cm의 金銅如來 坐像은 과연 이와같은 기대에 보답한 것이며 이 地帶에 대한 關心을 한층 자극하여 준 바 있었다. 그것은 四世紀末 五世紀初의 우리나라 最古의 佛像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보다도 앞서서 이 地域 또는 그곳과 隣接된 곳에서 發見되었다고 傳하는 如來立像 一軀가 民間에 收藏되고 있는 事實을 數年前에야 알게 되었고 ① 그直後 現品도 調査할 수가 있어 이같은 新資料收拾을 多幸으로 여긴 바 있었다. 그러나 出土地點等 關係知見을 거의 알 수 없는 것이 유감스러운 일이었다. 現所藏者인 서울 李秉直氏에 의하면 解放直後인 一九四七年頃 一村婦가 이 佛像을 持參하고 南大門으로부터 서울에 들어와 그 부근에 자리잡고 있던 裴성관氏 古物商에 팔고 돌아간 것이라 하면서 이 女人이 往復할 수 있는 距離로서 廣州 또는 果川 等地가 아닐가 하였다. ② 이같은 推測은 막연하기 짝이 없어 그대로 믿고 立論



바 되었는데 이와같은 傳稱은 關係人들이 일치하여 전하여오는 바라고 한다.

短軀의 小像으로서 둥근 半球形 蓮座위에 直立正面한 一簪像인데 頭光은 없어도 긴 突起만이 頭後에 남아 있다. 먼저 臺座는 十瓣의 複蓮이 둘러있는 간소한 것인데 그 蓮瓣尖端이 銳角을 이루고 있어 그 樣式과 더불어 北魏系手法를 지닌 點이 注目된다. 그리고 이같은 圓座形式은 延嘉七年銘이나 故全蓋彌氏 所藏 癸未銘 金銅三尊像 등의 圓筒形蓮座와도 樣式이 약간 다른 三國期 佛座의 一形式이다. (金東鉉氏藏 金銅 誕生佛立像의 臺座가 이와 同一하다)

다음에 큰 頭部에는 小圓을 點刻하여 螺髮形을 표현하였는데 頭頂에는 둥근 無紋部를 남기고 있을뿐 肉髻로 보이는 突起가 없는 點이 먼저 주목된다. 얼굴은 方形에 가까운데 兩眼은 三國佛에 特異한 두툽한 杏實形 突起로서 하였으며 口鼻는 작은 편이고 이에 反比하여 兩耳는 매우 細長하여서 兩肩 法衣위까지 이르고 있다. 法衣는 通肩으로 엄격한 對稱의 褶襞을 보이는데 옷깃이 가슴 밑으로 길게 내려와 U字形을 이루는 通式이 아니라 목 밑 가까이 치켜 올려져 있는 點이 또한 다르다고 할 것이다. 兩手는 매우 큰데 右手는 들고 左手는 내려 모두 現掌하여 三國佛의 通印인 與願 施無畏印을 보이고 있으며 兩足은 넓은 蓮肉위에 모으고 있다. 側面에는 옷주름이 垂下되고 있을 뿐이며 背面은 扁平無

키는 어려우나 우선 서울 近郊에서 出土된 것으로 傳稱되어 온 사실만은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佛像은 買入者인 裴氏로부터 金東鉉氏의 손을 거쳐서 一九四八年 李氏가 收藏한

紋하며 오직 左肩部에 三角衣端이 걸쳐 있을 뿐이다. 鍍金이 잘 남아 있고 곳곳에 黑褐色 斑點이 보일뿐 保存은 良好하다.

이와같은 獨尊의 如來立像으로서는 매우 稀貴한 遺品이라 하겠는데 身長에 比하여 頭部나 兩手가 過大한 非寫實의 彫法이나 前面爲主의 全簪 樣式 또는 衣褶紋에 보이는 雄健한 刻法 등에서 우리나라 初期造像樣式의 特徵을 지니는 作으로 보고자 한다. 동시에 圓印形의 螺髮表現이나 蓮花紋의 古式에서 뿐 아니라 扁平한 方顔<sup>③</sup>에서 느끼는 溫柔謹嚴한 作風이나 延嘉七年銘 金銅如來立像의 鱗形衣紋과는 對照의 인 垂下式 手法 등에서 이 作品의 地域性과 그 造成年代를 아울러 짐작케 함이 있다. 그리하여 이 如來像이 細部樣式의 差異에도 不拘하고 忠南 瑞山 磨崖三尊의 本尊如來立像과 系脈을 이을 수 있는 作品으로 注目하는 동시에 百濟의 小金銅如來立像(例컨대 公州 博物館藏 小如來立像——日帝時 公州郡 鷄龍面 新基里 陵岩寺址 出土—— 또는 金庠基氏藏 傳鷄龍山出土 小如來立像) 등과 同系의 作品으로 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이 新像은 出土地點을 알수는 없으나 傳稱을 따라 解放直後의 서울 近郊出土로 假定하면서 그 자체의 樣式에서 三國期의 作品으로 推定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年代는 上學한 서울 畿島出土像보다는 降下하여 六世紀의 作으로 推定코자 한다. 때는 中國에 있어서 六朝末期에 該當한다.

全高九·三cm 像高七·六cm 頭長二·三cm 臺座徑三·八cm

註

- ① 一九六二年 八月十日 서울 金東鉉氏의 配應에 의하여 그 拓影을 볼 수 있었다.
- ② 一說에는 서울 北方 議政府附近出土라고도 한다.
- ③ 이같은 相好樣式과 그 作風이 德美藏 如來立像——寫眞帖佛像篇 三國時代——이나 國博藏 國寶 金銅半跏像과 類似함을 指摘하여 둔다.